

세르히오 파하르도의 메데인 이야기¹⁾

김 란

메데인에 세르히오 파하르도가 나타났다.

스페인에서 독립한 건국 초기, 콜롬비아는 프랑스와 미국의 사법적·정치적 모델을 채택했다. 그리고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적 국가 등의 요소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콜롬비아에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나 국민은 없었다. 자유당과 보수당은 사회 계층들의 특정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국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바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찾을 수 없었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가는 언제나 강압적인 존재였다. 사회적 결핍과 요구에 응답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치가들의 연설은 자신들의 삶과 너무 멀었기 때문에 투표는 의미가 없었다.

2000년 파하르도는 ‘독립적인 시민운동’을 주장하며 메데인 시장 선거에 녹색당 대표로 출마한다. 파하르도는 누구보다 짧고 이해하기 쉬운 연설을 했고, 시민들은 인터넷과 다양한 홍보 방안으로 그를 지지했다. 많은 사람들과 메데인 시가지를 함께 걸으며 친밀함을 키워가기도 했다. 그리고 낙선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 “선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녹색당의 파하르도는 두 배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파하르도는 1956년 6월 19일 콜롬비아의 메데인에서 출생하였다. 이

1) 이 글의 이미지는 세르히오 파하르도의 공식 웹페이지(www.sergiofajardo.com)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사용했음을 밝힙니다.



2003년 선거에서 당선된 파하르도가 청소년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후 보고타 로스 안데스 대학교(Universidad de los Andes)에서 수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과 경제학 부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초 과학, 석사 및 박사를 위한 국립 위원회, 안티오키아 대학과 기술센터의 소장을 역임했다. 그 후, 콜롬비아의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콜롬비아노》의 부국장으로 일하며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문도》, 《에스펙타도르》와 같은 일간지에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도시활동〉(Operación Ciudad)과 카라콜(Caracol) 라디오 〈비바 에프엠〉(Viva FM)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가 안티오키아의 주지사로 있던 시절, 안티오키아 평화촉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콜롬비아 내부의 무력 충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메데인의 시장이 된 세르히오 파하르도, 손덜 엄두조차 나지 않는 어렵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하르도는 수학 전공자다운 해결방법을 보여준다. 문제를 단순 명쾌하게 바라볼 것. 콜롬비아에서 사회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오래된 사회적 채무, 뿌리 깊은 폭력.

무엇보다 정치가 변할 필요가 있었다. 콜롬비아에서 정치는 관료주



세르히오 파하르도

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비대표성, 부패의 상징이었다. 시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갖고 투표를 거부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파하르도는 두 가지 혁신안을 제안한다.

첫째는 정치 개혁이다. 정치인들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시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당연히 이 선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과 직장인, 교육기관, 시민단체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다.

둘째는 권력의 올바른 사용으로 사회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독립적인 시민운동을 제안하는 녹색당은 원칙을 중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파하르도는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신뢰와 믿음을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지도자들의 내면부터 보여주는 행동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꿈과 이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간단한 공식으로 사회 문제와 해결 방법을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폭력이 줄어들수록 사회적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 메데인이 아니라 가장 교육적이고 교양 있는 도시 메데인(la más educada) 계획이 시작되었다.

메데인, 가장 교양 있는 도시

- 문화: 창작과 인류 정신
- 예산 공개: 모든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의 참여 가능
- 도시 계획: 보수가 필요한 건물들의 수리 및 개조, 골목 및 도로 정비
- 공익을 위한 기반 시설 계획: 운동 시설, 교통시스템 정비
- 기업가 정신: 소상공인 육성, 빈곤층을 자립 사업 지원
- 고등 교육 시설 설치: 청소년들에게 혁신의 기회 제공
- 새로운 공공 공간: 도서관 공원 계획
- 정의와 안전

동시에 파하르도 정부는 시민을 위한 공공 경영 14가지를 발표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시민에 대한 선서였다. 14가지 원칙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상식적인 것이라 굳이 언급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메데인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

그리고 몇 년 뒤, 메데인은 2006년 콜롬비아 투명성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7년에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MEDELLÍN CÓMO VAMOS 참조). 그리고 콜롬비아 공공 재정보고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무엇보다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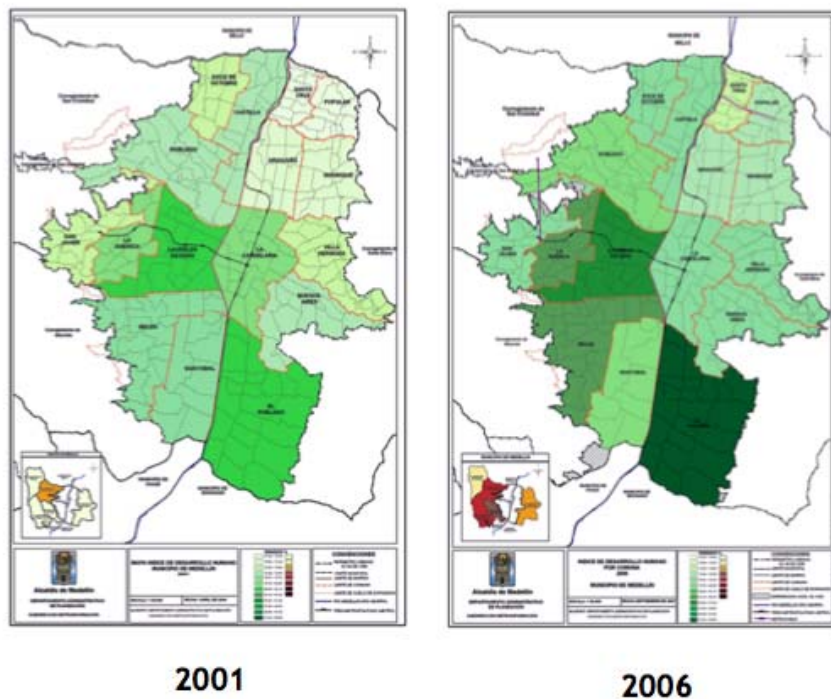
시민을 위한 공공 경영 14가지 원칙

1. 공공 자금은 신성하게 다루어야 한다.
2. 공적 업무의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 누구와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집행에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관해 정부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3. 정치권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4.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양심을 팔거나 사소한 의견 차이도 무시하지 않는다.
5. 도시의 변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6. 도시 계획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7.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효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8. 지역 사회와 개방적이고 명료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9. 공공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10. 공무원들은 정직해야 한다. 또한 역량을 갖추고 도시에 깊게 관여해야 한다.
11. 도시 개발은 시 정부와 모든 시민들과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12. 연대와 협력이 도시와 지역, 부서, 나라 그리고 세계 공동체간의 관계의 시작이다.
13. 주(州)가 정당성을 보장 받으려면 시민들이 주지사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14.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며, 어떠한 사상이나 목적도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없다.

가운 소식은 더 이상 메테인이 폭력으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1991년에는 인구 10만 명 중 살해당하는 사람이 381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점차 낮아져 2007년에는 26명으로 줄어든 결과를 볼 수

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매년 문자해독률과 평균수명, 1인당 실질 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발표한다.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불리는 이 지수는 인간의 행복이나 발전 정도는 소득 수준과 비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2006년 메데인의 인간개발지수는 2001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고른 지역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메데인 인간개발지수

폭력은 어떻게 줄어나갈 수 있을까? 정부가 합법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도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여기에서 치안과 시민 문화를 고려한 도시 계획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장 가난



탁아소(Ludoteca)

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책을 읽는 것” 그 모습을 상상하며, 파하르도와 도시계획 책임자 알레한드로 에체베리(Alejandro Echeverri), 기술자,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 해 9억 달러(약 8,260억원)인 메데인 예산의 40%를 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도시 곳곳에 들어선 탁아소(Ludoteca)에 간다. 장난감을 빌리거나 그림 수업을 듣는다. 레온 데 그레이프(León de Greiff) 탁아소의 경우, 하루 약 1,20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양육 걱정을 덜은 엄마들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거나, 아기를 옆에 재워두고 탁아소 한편에 있는 육아서적을 읽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된다. 산토도밍고, 인디펜덴시아, 산하비에르, 메르세데스 등의 지역에 학생 2만 명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열 곳을 새로 지었다. 그리고 낙후된 학교들의 개선, 보수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메트로폴리탄 기술연구소(ITM: Instituto Técnico Metropolitano)에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2004년 8,000명이 수업을 듣던 이곳은 이제 23,000명의 학생들



변화된 메데인 풍경

이 있다. 메데인의 아이들은 이곳에서 가능성을 만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난한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선 공립 도서관이 있는 공원 다섯 곳이다. 특히 산토도밍고 지역은 메데인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무작위로 점거하고 판잣집을 짓고 자리 잡은 곳이다. 그들은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메데인 안에서도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 여기 언덕 위에는 바위를 닮은 거대한 에스파냐 도서관이 있다. 건물 앞 광장에서는 알록달록한 벽화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파는 시장과 작은 콘서트가 열리기도 한다. 건물 하나가 이렇게 주민들의 일상을 바꾸기도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랜드마크가 들어섰다. 과학센터, 문화시설, 그 중 메데인 식물원(Jardin Botanico) 한가운데 있는 난초원(Orquideorama)은 사계절 봄을 느낄 수 있는 도시 메데인의 상징이다. 골목 구석부터 대규모 공공시설까지 도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아름다운 현대건축에 감탄하는 한편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걱정된다. 그리고 궁

금해진다. 이런 자금은 전부 어떻게 충당하고 있을까? 모든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을까?

지역마다 마련된 사업지원센터(CEDEZO)에서는 누구든 소상공인 수업을 듣고 창업 관련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한 빈곤층 사람들은 이제 게릴라 대신 정부에게 세금을 낸다. 매해 시청에서 공개하는 보고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 당당하게 그 집행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낸다. 시청 사람들은 무관심보다 비판이 반가웠을 것이다.

또한 메데인은 거주 지역과 소득에 따라 세금 징수 기준을 6단계로 분류한다. 포블라도(Poblado)에 살고 있는 부유한 가족은 1단계에 해당하므로 몇 배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이 돈은 엘포블라도 지역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대신에 곧 무너질 것 같은 모라비아(Moravia) 지역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고, 아우로라(Aurora)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한 월세로 머무를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 물론 부유층 전부가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콜롬비아에서 가난은 본인이 게으르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그저 물려받은 경우가 많다. 동시에 누군가는 운이 좋아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정책을 지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 계산해보기를 권한다. 빈곤층에게 더 나은 삶과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여유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총을 든 게릴라를 염려해 자기 집 담장을 높이고 24시간 경비를 강화하는 비용이 과연 적을까? 그래도 여전히 도시 전체가 위협해서 조금 어두워지기만 해도 거리를 걸을 때 불안하다면 어떨까? 이런 사회적 비용으로는 아직 부족한가? 마약과 폭력으로 악명 높은 도시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오거나 투자할 결심을 할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자. 내가 내는 세금으로 도서관을 지으면 많은 아이들이 그 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아이들은 하마터면 마약에 찌들었을 수



산토도밍고 도서관 주변의 변화

도 있고, 그 지역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폭력사건 중 하나에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얼마나 다행인가.

위기에 처한 인도주의는 건축적인 해법으로 회복 가능할까? 자선기구 ‘사람을 위한 건축’ (Architecture for Humanity)은 커리스턴 디자인상 (Curry Stone Design Prize)을 운영한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상이다. 2009년에 파하르도와 에체베리가 커리스턴 디자인상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이끌었던 계획에 참여했던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은 죽어가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더 이상 슬럼이 아니라 도시의 허브 역할을 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랜드마크만 지어낸 것이 아니었다. 메데인의 케이블카(Metrocable)는 가장 빈곤한 지역과 고립되어 있던 지역까지 연결하고 있다. 시각적인 변화와 동시에 마련된 여러 사회 프로그램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었다. 현대 건축을 이용한 충격요법은 효과가 있었다.

여전히 경찰은 중무장한 상태로 도시를 순찰한다. 시내 곳곳에서 코카인에 취한 청소년을 만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많은 이들이 막대한 예산으로 ‘핑크빛 피라미드’ 만 짓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2007년 말, 그의 지지율은 콜롬비아 역대 시장 중 최고인 80% 이상이었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2010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녹색당은 중요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헤토르 아바드 파시올린세(Héctor Abad Faciolince)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항 없이 부의 재분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치인입니다. 메데인이 변할 수 없다면 어떤 도시도 변할 수 없습니다. “

건축과 도시계획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파하르도의 임기가 끝나가는 동시에 메데인의 도시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면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행히 뒤를 이은 알론소 살라사르(Alonso Salazar)

시장은 대부분의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총 8년 동안의 진행 과정은 메데인 시청에서 2011년 11월에 펴낸 책자 『메데인, 도시 변화 안내 2004-2011』에서²⁾ 다루는 130개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책이 메데인의 가까운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있다면, 다른 책 『바이오 2030』은³⁾ 메데인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2012년, 새로운 시장 아니발 가브리아(Aníbal Gaviria Correa)의 메데인은 어떨까? 그리고 안티오키아 주지사에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어 메데인 시청 옆 건물로 출근하고 있는 세르히오 파하르도는? 그는 벌써 ‘안티오키아, 가장 교양 있는 주’ (Antioquia, La Más Educada)를 구호로 내걸었다. 여전히 콜롬비아에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남아있다. 어렵지만 피하지 않고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지구 반대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김 란 — 온갓기획(onGod creative) 대표. 현재 메데인과 서울의 사회 도시론 (Urbanismo Social)을 다루는 웹페이지(socialurbanism.org)를 운영하고 있다.

2) ‘메데인, 도시 변화 안내서 2004-2011’ (Medellín, Guía de Transformación Ciudadana, 2004-2011), 2011. 이 책은 온라인에서도 읽을 수 있다.
<http://issuu.com/reddebibliotecas/docs/pdfinalbaja>

3) Bio 2030, Plan Director de Medellín y el Valle de Aburrá,
<http://www.eafit.edu.co/minisitios/bio2030/Paginas/inicio.aspx>